

번호 08-4

제 목	국문	한국인에서 대장 선종과 혈청 지질 및 혈당과의 관련성에 관한 환자-대조군 연구			
	영문	Association of serum lipids and blood glucose with the risk of colorectal adenoma in Korea : A case-control study			
저 자 및 소 속	국문	주제식, 박수경, 강대희, *유근영			
	영문	Jae-sik Joo, Sue-Kyung Park, Daehye Kang, Keun-Young Yoo			
분 야	보건관리 ()	발 표 자	일반회원 (0)	발표 형식	구 연 (0)
	역 학 (0)		전 공 의 ()		포스터 ()
환 경 ()					
진행 상황	연구완료(0),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대장 선종은 대장암의 전구 질환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 대장 선종과 혈청 지질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면 국제적으로 학술적 논쟁거리의 하나인 대장암 발생과 콜레스테롤, LDL-cholesterol, triglyceride 그리고 HDL-cholesterol과의 관련성에 관한 논쟁의 실마리를 푸는 단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동양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대장 선종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장암 전구질환으로서 대장 선종의 발생위험과 혈청 지질 및 혈당과의 관련성을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방법

1997년 1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만 1년 9개월간 한국보훈병원과 서울외과클리닉에 대장암 조기검진을 위해 내원한 사람 중에서 대장내시경을 마치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임상적 그리고 병리-조직학적으로 확진된 161명을 환자군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조군은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이 없음을 확인한 건강인 중 환자군과 성-연령별(5세 이내)로 1:1 짝짓기하여 161명을 선정하였다. 독립변수와 대장 선종 발생과의 관련성은 평균치 검정 및 독립성 검정을 이용한 단변수 분석과 교란변수와 짝짓기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면서 unconditional linear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해 평가하였다.

3. 연구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치가 낮은 군에 비해 중간군 및 고 콜레스테롤군에서 선종 발생 상대위험도가 각각 2.00, 3.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뚜렷한 양-반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p for trend = 0.02). 대장 선종위험과 혈청 콜레스테롤치와의 직선적 관련성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자 p for trend = 0.07; 여자 p for trend = 0.02). Triglyceride치도 낮은 집단에 비해 중간군 및 높은 집단에서 선종 발생 위험이 각각 1.28배, 2.34배로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p for trend = 0.03), 이러한 경향은 남자에서 뚜렷하였다 (p for trend = 0.01). 혈청 HDL-Cholesterol치와 LDL-Cholesterol치는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장 선종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은 관찰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한편, 혈당치가 높은 군에서는 대장 선종 발생위험이 0.41배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관찰되었으며, 남자에서는 선종 발생위험을 유의하게 낮추는 일관성이 관찰된 반면, 여자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비만지수(body mass index)와 대장 선종과의 관련성은 없었으며, 허리-엉덩이 둘레는 크면 클수록 대장 선종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흡연과 대장 선종과의 관련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주는 남자에서 선종 발생위험을 1.76배 (95% CI 0.98-3.17) 증가시켰으며, 대장암 가족력과 관련성은 전체 대상군에서는 가족력이 있는 집단의 위험도가 2.51배 (95% CI 0.93-6.69), 남자에서는 3.49배 (95% CI 1.11-11.0)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4. 고 찰

본 연구를 통하여 대장암의 전구질환인 대장 용종의 위험은 혈청 지질, 특히 높은 콜레스테롤치와 높은 triglyceride치, 그리고 특이하게도 높은 혈당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역학적 연구 결과는 향후 대장 선종 더 나아가서는 대장암의 발암 기전을 이해하는데 기여하리라 예상된다.